| 국어는 이감 |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국어 영역

시즌4 제4차 예비평가 정답과 해설

이감국어교육연구소

이 콘텐츠에 관한 저작권은 (주)이감에 있습니다.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즌4 제4차 예비평가

국어 영역 정답표
(홀수)형

공통과목						선택과목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문항 번호	정답	배점	문항 번호	정답	배점	문항 번호	정답	배점	문항 번호	정답	배점
1	③	2	18	①	2	35	①	2	35	⑤	2
2	①	2	19	③	3	36	④	2	36	①	3
3	⑤	3	20	⑤	2	37	④	2	37	②	2
4	②	2	21	③	2	38	③	2	38	②	2
5	①	2	22	⑤	2	39	④	2	39	④	2
6	④	2	23	④	2	40	⑤	2	40	④	2
7	⑤	2	24	④	3	41	②	2	41	②	2
8	③	3	25	②	2	42	②	3	42	②	2
9	③	2	26	⑤	2	43	①	2	43	①	2
10	②	2	27	①	2	44	④	3	44	③	2
11	⑤	2	28	③	2	45	③	2	45	③	3
12	④	2	29	①	2						
13	①	3	30	④	3						
14	①	2	31	②	2						
15	⑤	2	32	③	2						
16	④	3	33	②	2						
17	②	2	34	④	3						

이 콘텐츠에 관한 저작권은 (주)이감에 있습니다.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즌4 제4차 예비평가 해설

• 공통과목 •

[1 ~ 3] 독서론

1. **[출제의도] 책을 선정할 때 고려한 사항을 적절하게 확인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학생은 문학에서 생물학으로 전공을 바꿔 과학 분야에서 학위를 받은 저자의 이력에 흥미를 느꼈고, 그것이 책을 선정한 이유 중 하나이다.
[오답풀이] ① 학생은 평소 관심이 많던 환경 문제에 관한 책을 선정했다. ② 학생은 다양한 학문 분야를 망라하여 집대성한 책인지의 여부를 고려하지 않고 책을 선정했다. ④ 학생은 다른 이의 권유에 의해 책을 선정하지 않았다. ⑤ 학생은 특정한 전문 지식을 심도 있게 다루고 있는지의 여부를 고려하지 않았다.

2. **[출제의도] 학생의 독서 방법을 적절하게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 앞부분을 다시 확인하는 태도는 학생의 독서 일지에서 찾아볼 수 없다.
[오답풀이] ② 학생은 책의 제목과 '가지 않은 길' 등의 목차의 항목을 보고 고른 책이 문학 작품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③ 학생은 책 내용과 관련하여 미세 플라스틱의 체내 축적에 대한 기사를 읽은 것을 떠올렸다. ④ 학생은 책을 읽으면서 읽는 데에 시간이 얼마나 소요되고 있는지 확인하여 독서 계획에 차질이 없는지 점검하는 모습을 보였다. ⑤ 학생은 도입부에서 제기한 저자의 질문이 어떻게 해결될 수 있는지 주목하며 책을 읽었다.

3. **[출제의도] <보기>를 바탕으로 독서 일지를 쓴 학생에게 적절하게 조언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보기설명] 대중의 눈높이에 맞추기 위해 비유 등을 활용하여 전문 지식을 전달할 경우에 잘못된 이해가 형성되는 등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정답풀이] 효과적인 전달 기법이 오히려 참된 이해를 방해할 수 있다. 따라서 문학적 표현을 사용한 설명 방식으로 인해 내용을 쉽게 수긍한 학생에게 설명 방식 이면의 사실 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할 수 있다.
[오답풀이] ① 자신의 관점을 바탕으로 책의 내용을 판단하라는 것은 <보기>와 관련 없는 조언이다. ② 저자의 주장을 반박하는 사람들의 견해를 찾아보라는 것은 <보기>와 관련 없는 조언이다. ③ 학생이 읽은 책도 전문가가 집필한 서적이므로 조언으로 부적절하다. ④ 다양한 독자들의 수준에 적합한 내용인지 점검해 보라는 것은 <보기>와 관련 없는 조언이다.

[4 ~ 9] 사회 통합

➔ **연계 지문 : 수능특강 121쪽**

4. **[출제의도] 지문의 내용 전개 방식을 적절하게 설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가)에는 국채 발행으로 경기를 부양하려는 정부의 정책과 그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민간 소비가 확대되지 못하는 상황이 펼쳐질 것이라는 학자들의 견해가 언급되어 있다. (나)에는 국채 발행 시에 그 재정적 부담이 미래 세대로 전가될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오답풀이] ① (가)와 (나) 모두 국채 발행이 소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언급하고 있지만, 실제 사례를 제시하여 분석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③ (가)와 (나) 모두 국채 발행이 미치는 효과에 관한 이론은 제시되어 있으나 후속 연구에 의해 그 이론이 보완되는 과정을 고찰하고 있지는 않다. ④ (나)는 국채 발행이 야기하는 문제점을 서술하고 있으나 이를 극복할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⑤ (가)는 국채 발행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학자의 입장을 소개하였으므로 국채를 발행해야 한다는 견해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소개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비판적 입장의 한계를 지적하며 논의를 끝맺고 있으므로 비판적 입장의 가치를 부각한다고 볼 수 없다.

5. **[출제의도] 지문에 제시된 세부 정보를 적절하게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국채 상환을 위해 또 다른 국채를 거듭 발행하면 국채 상환 및 이자 지급 부담이 커지므로 정부의 재정적 부담은 커질 수 있다.
[오답풀이] ② 국채를 매입한 이는 보유한 국채에 따른 이자를 해마다 받을 뿐만 아니라 만기에는 국채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환받는다. 상환 부담을 지는 것이 아니다. ③ 리카도의 대등 정리가 비현실적인 이론이라 비판하는 이들은 사람들이 대체로 조세 부담을 고려한 합리적인 선택을 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한다. ④ 국채 발행으로 확보한 재원의 투자 수익률이 국채 이자율보다 높으면 국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자 부담 이상의 혜택을 받으므로 미래 세대가 져야 할 부담은 그만큼 줄어든다. ⑤ 리카도의 대등 정리는 청년, 중년, 노년 세대가 공존한다는 점을 가정하지 않았다. 오히려 주어진 시점에 한 나라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의 세대로 가정하였다.

6. **[출제의도] 지문의 특정 입장에 부합하는 진술인지를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배로를 비롯한 일부 경제학자들(㉠)은 정부 지출 규모가 일정한 경우에, 정부 지출을 구성하는 국채와 조세의 비율이 달라지더라도 민간 소비는 변함이 없다고 본다.
[오답풀이] ① 민간 소비가 확대되면 경기 부양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은 ㉠도 동의하는 바이다. 다만 ㉠은 정부 지출의 규모가 일정한 상태에서 재원 조달 방법만 바꾸는 것으로는 경기 부양 효과에 차이가 없다고 볼 뿐이다. ② ㉠이 수용하는 리카도의 대등 정리는 인구에 변동이 없다는 가정하에 성립된 것이므로 ㉠도 이에 동의할 것이다. ③ ㉠은 증세 대신 국채를 발행하면 당장은 국민들의 조세 부담이 늘지 않지만 국채를 상환해야 하는 만기에는 조세 부담이 늘어나므로 국민들의 조세 부담 시기가 이전되는 효과가 나타난다고 본다. ⑤ ㉠은 사람들이 미래의 조세 부담 증가를 예상하고 당장의 소비 대신 저축을 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미래 세대에게 유산을 물려줄 것이라고 본다.

7. **[출제의도] 지문에 제시된 특정 모형에 대해 적절하게 설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현세대에 대한 이전 지출을 늘리기 위해 현세대에 증세를 하면, 이는 현세대로부터 거둔 조세로 이전 지출을 늘리는 것이다. 이 경우에는 미래 세대의 부담 증가로 이어지지 않는다.
[오답풀이] ① 세대 간 회계 모형은 장기간 존속하는 정부가 사용할 수 있는 재원과 관련된 모형이다. ② 세대 간 회계 모형의 예산 제약은 정부가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의 최대치로서 각 세대의 순납부액의 현재 가치와 현시점의 정부의 순자산을 합친 것과 같다. 또 각 세대의 순납부액은 각 세대가 낸 세금으로부터 산출된다. 따라서 예산 제약은 정부의 순자산과 각 세대가 내는 세금으로 충당된다. ③ 세대 간 회계 모형에서 예산 제약에는 현세대의 순납부액의 현재 가치와 미래 세대의 순납부액의 현재 가치가 포함된다. 따라서 각 세대의 순납부액을 모두 현재 가치로 환산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참고로 각 세대의 순납부액을 구할 때는 인생을 통틀어 납부하는 세금을 반영하므로 현세대의 경우에도 현재 가치로 환산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④ 정부가 이전 지출을 늘리거나 조세를 줄이면, 즉 정부의 재정 정책이 바뀌면 세대 간 조세 부담의 분배 양상이 달라진다. 세대 간 회계 모형을 통해, 정부의 재정 정책이 달라질 경우에 그 부담이 각 세대에 어떻게 분배될 것인지 알아볼 수 있다.

8. **[출제의도] 지문을 바탕으로 <보기>의 학자들의 견해를 적절하게 추측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보기설명]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정부가 조세 수입을 줄이고 그만큼 국채를 발행하는 상황이 제시되어 있다. X는 자국민에게만 발행된 내부 채무로 국채 이자 및 만기 상환 부담의 주체도 자국민이며 만기에 상환받는 주체도 자국민이다. Y는 외국인에게만 발행된 외부 채무로 국채 이자 및 만기 상환 부담의 주체는 자국민이지만 만기에 상환받는 주체는 외국인이다. 이럴 경우에 리카도의 대등 정리를 수용하거나 비판하는지에 따라 어떤 분석이 가능한지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
[정답풀이] 리카도의 대등 정리를 수용하는 '갑'은 주어진 시점에 한 나라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의 세대로 가정한다. 즉 현재 시점에는 현세대가 있고 미래 시점에는 미래 세대가 있는 것이다. 국채를 발행하면서 현세대의 조세 수입을 줄였으므로 현세대의 가처분 소득은 국채 발행 액수인 2,000억 원만큼 늘어난다. 이후 현세대는 이 가처분 소득으로 국채를 매입하든지 할 것이다. 그리고 먼 훗날에 미래 세대는 두 국채를 모두 상환하기 위해 가처분 소득으로 총 2,000억 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 외국인에게 발행한 국채라 하더라도 그 상환 부담은 자국민에게 돌아가기 때문이다. 리카도 대등 정리는 이렇게 가처분 소득의 양상이 변하는 것은 인정한다.
[오답풀이] ① 국채 발행의 총 규모는 2,000억 원이고 이자율은 연 5%이므로 해마다 100억 원의 이자 지급을 해야 하며 그 부담은 자국민이 져야 한다. 하지만 X만 자국민이 보유한 국채이므로 자국민이 수취하는 국채 이자는 60억 원이다. 나머지 40억 원의 국채 이자는 외국인이 수취한다. ② 조세를 줄이면서 국채도 발행하지 않으면 국채를 발행할 때에 비해 정부 지출을 줄일 수밖에 없다. '갑'은 정부 지출의 규모가 동일할 경우에만 경기 부양에 미치는 효과가 차이가 없다고 본다.

이 콘텐츠에 관한 저작권은 (주)이감에 있습니다.

정부 지출 규모가 줄어든 경우에는 경기 부양 효과가 달라진다고 볼 것이다. ④ X와 Y의 국채를 모두 외국인에게 발행한다면 만기 시점의 중년 세대 중에 국채를 보유한 이는 아무도 없게 된다. 그러면 만기에 중년 세대는 국채를 상환하는 부담만 질 뿐이고 상환받는 국채는 없으므로 그들의 부담은 오히려 더 늘어날 것이다. ⑤ 한 시점에 청년, 중년, 노년 세대가 공존한다고 보는 '을'에 따르면 국채 발행 시점에 국채 발행과 조세 감면으로 현시점의 청년, 중년, 노년 세대를 통틀어 가처분 소득이 2,000억 원 증가한다. 반면 만기 시점의 청년, 중년, 노년 세대가 자신들의 가처분 소득으로 국채 상환을 위해 부담해야 하는 조세액은 여러 세대를 통틀어 총 2,000억 원이다. 만기 시점의 청년 세대가 자신의 가처분 소득으로 2,000억 원을 모두 부담하는 것도 아니며 국채 발행 시 2,000억 원의 가처분 소득 증가의 혜택을 발행 시점의 노년 세대만 받는 것도 아니다. 만기 시점 청년 세대의 가처분 소득이 국채 발행 시점 노년 세대의 가처분 소득으로 이전되는 효과가 나타나긴 하지만 그것이 이자 부분을 제외하고도 2,000억 원 규모인 것은 아니다.

9. [출제의도] 문맥을 고려하여 단어를 적절하게 바꿔 쓸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징수(徵收)하다'는 '행정 기관이 법에 따라서 조세, 수수료, 벌금 따위를 국민에게서 거두어들이다.'의 의미를 지닌 단어이므로, 문맥상 ⓐ의 '거두어'와 바꿔 쓸 수 있다.

[10 ~ 13] 기술

➔ 연계 지문 : 수능특강 240쪽

10. [출제의도] 지문과 일치하는 내용을 찾을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객체의 윤곽 부분은 그 객체를 이루는 형태적 특징으로, 증강 현실 장치로 하여금 객체가 관심 영역에 존재하는지를 판별하는 기준이 된다. 이를 고려했을 때 객체의 윤곽 부분에서는 인접 화소들과 비교했을 때 밝깃값의 변화가 오히려 크게 나타날 것이다. 윤곽은 객체와 배경을 구분하는 선이기 때문이다. 즉 기울기의 크기 성분이 상대적으로 큰 편일 것이다.

[오답풀이] ① 분류기는 탐지하려는 객체 유형과 관련하여 정답이 확인된 다량의 영상 자료로 기계 학습을 거친다. ③ 객체는 움직임이 배경보다 커서, 객체 부분의 화소에서는 밝깃값의 변화가 배경에 비해 크게 나타난다. ④ 관심 영역은 배경 부분과 구분되는 객체 부분의 특징을 기준으로 설정된다. 따라서 탐지하려는 객체가 그 종류에 따라 크기, 형태 등이 다르다면 관심 영역의 규모도 달라질 것이다. ⑤ 증강 현실 장치는 실제의 현실에 가상의 사물 이미지를 덧입혀서 보여 줄 수 있다.

11. [출제의도] 지문에 소개된 특정 기술에 대해 적절하게 이해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셀 히스토그램을 만들 때에는 개별 화소들이 해당 셀의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고려하지 않는다. 화소가 어디에 위치하든 기준 방향에 따라 기울기의 크기 성분을 누적하는 방식을 택하기 때문이다. 참고로 각 기울기의 방향 성분도 셀의 중심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각 해당 화소들을 기준으로 할 때 가장 밝아지는 방향으로 정해진다.

[오답풀이] ① 기울기에서 방향 성분은 인접한 화소들의 밝기들로 보아 가장 밝아지는 방향으로 정해지는 만큼 360도의 모든 방향 중 하나의 방향으로 결정된다. 화소의 기울기 자체가 9개의 기준 방향 중 하나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② 관심 영역의 설정은 객체 부분의 화소에서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밝깃값의 변화가 크다는 점을 감안하여 이루어진다. ③ 객체 탐지에서는 회색조 변환이 먼저 이루어지는데, 이는 색상 정보가 없어도 객체 탐지가 가능하다는 것을 함의한다. ④ 분류기에 입력되는 셀 히스토그램은 관심 영역을 이루는 각 셀에서 추출한 특징 정보로서, 셀 히스토그램들에는 그 객체를 이루는 형태적 특징이 포함되어 있다.

12. [출제의도] 지문을 토대로 <보기>의 진술을 적절하게 완성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화소의 기울기를 얻을 때에는 인접한 네 화소의 밝깃값뿐 아니라 해당 화소의 밝깃값도 활용해야 한다. 따라서 총 5개의 밝깃값을 사용하여 수리적 방법을 동원해야 한다(A). 또한 셀의 규모를 줄일수록 관심 영역 안의 셀의 개수는 늘어난다. 각 셀마다 셀 히스토그램이 하나씩 얻어지는 만큼, 특징 정보에 해당하는 셀 히스토그램의 개수는 늘어나게 된다(B). 분류기는 학습 자료들에서 동일한 방식으로 셀 히스토그램을 만들어 기계 학습을 거친다. 그리고 관심 영역 안에 객체가 있다면 대략 비슷한 위치의 셀에 비슷한 셀 히스토그램이 나타난다는 점을 활용하여 유사도를 판별한다. 따라서 학습 자료에 포함된 특징 정보의 개수, 즉 셀의 개수와 비교할 때 객체 판별을 위한 특징 정보의 개수는 그와 일치해야(C) 할 것이다.

13. [출제의도] 지문을 참고하여 <보기>를 적절하게 탐구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보기설명] 셀 X로부터 셀 히스토그램을 얻는 과정이 제시되어 있다. 0도 방향에는 '3/350, 2/20'의 두 기울기가 누적된다. 다만 '2/20'은 0도 방향과 40도 방향의 중앙이기 때문에 그 값의 절반인 1만 누적되어야 한다. 따라서 ㉮는 '3 + 1 = 4'가 된다. 80도 방향에는 '3/90, 2/65'의 두 기울기가 누적되어 ㉯는 '3 + 2 = 5'가 된다. 200도 방향에는 '6/200, 8/190, 2/200'의 세 기울기가 누적되어 ㉰ '6 + 8 + 2 = 16'이 된다. 마지막으로 320도 방향에는 '2/330'의 기울기가 누적되어 ㉱는 2가 된다.

[정답풀이] ㉮는 '3/350'의 크기 성분 3과 '2/20'의 크기 성분의 절반인 1이 누적된 값인 4이고, ㉯는 '3/90, 2/65' 두 화소의 크기 성분이 누적된 값인 5이다.

[오답풀이] ② ㉰는 '6/200, 8/190, 2/200'에 해당하는 화소들의 크기를 모두 누적한 값인 16이다. 하지만 여기에는 방향이 190도인 화소도 포함되어 있다. ③ ㉱에 크기를 누적해야 하는 단 하나의 화소는 '2/330'으로 이때의 방향 성분은 330도 방향으로 가장 밝아진다는 뜻이다. 320도의 기준 방향에 누적된다고 해당 방향으로 가장 밝아지는 것은 아니다. ④ 객체의 윤곽은 누적 크기를 통해 알 수 있는 대체적인 기울기에 수직한 방향으로 형성된다. 즉 200도에서 240도 사이의 방향과 수직한 방향에 형성될 것이다. ⑤ 증강 현실 장치의 분류기는 효율적인 판별을 위해 셀 히스토그램을 만들고 이를 통해 유사도를 판별한다. 누적 크기가 가장 큰 특정 화소에 대해서만 유사도가 기준치를 넘는지 확인하는 것이 아니다.

[14 ~ 17] 인문

➔ 연계 지문 : 수능특강 88쪽

14. [출제의도] 지문의 세부 정보들을 적절하게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정조는 즉위 직후 위외격쟁을 허용하는 수교를 내렸다. 위외격쟁은 왕이 행차할 때에 호위 장막 밖에서 행하는 격쟁을 말한다. 장막 안에 난입하여 행하는 격쟁도 허용한 것은 아니다.

[오답풀이] ② 민은에 관한 것도 허용되며 상언과 격쟁이 활성화되었는데, 넷째 문단을 보면 정상적인 고발이 아니라 외람의 비중이 늘어났음을 확인할 수 있다. 대신들은 이 점을 문제 제기하며 상언과 격쟁에 대한 통제를 재차 주장한 것이다. ③ 정조는 상언과 격쟁이 신분제의 부정이나 집단적 저항으로 변질될 조짐을 보이자 이에 대한 규제를 시도하였다. ④ 자신에게 부과된 형벌에 대한 사안은 사건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그 주제를 다루는 것 자체는 외람의 대상이 아니다. ⑤ 민은까지 허용되자 상언과 격쟁은 개인적 원통함을 넘어 사회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이 되었다.

15. [출제의도] 지문에 소개된 특정 대상에 대해 적절하게 이해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대신들은 선왕의 수교, 즉 신묘년 수교가 격쟁의 남발을 막으려는 취지라고 해석하였다. 신문고를 이용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임을 알고 있음에도 이를 세우고 대신 격쟁을 금하라고 한 것으로 해석한 것이다.

[오답풀이] ① 사건사만 허용한 것은 신묘년 수교와 무관하게 진행되어 온 것이다. ② 민은까지 격쟁으로 호소할 수 있도록 하는 수교는 정조 9년의 수교이다. 이 수교가 아니라 위외격쟁을 허용한 정조 1년의 수교가 신묘년 수교를 근거로 삼았다. ③ 신묘년 수교로 격쟁이 금지되고 신문고가 다시 세워졌으나, 둘째 문단 마지막 부분을 살펴보면 그러한 조치들에도 불구하고 상언과 격쟁이 늘었음을 알 수 있다. ④ 징 대신 북을 쓰라는 취지라고, 민의 수렴 자체를 막으려는 것이 아니었다고 해석한 것은 대신들이 아니라 정조이다.

16. [출제의도] 지문을 바탕으로 <보기>에 대해 적절하게 반응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보기설명] 정조 9년의 수교 이후 대신들은 상언과 격쟁에 외람된 내용이 많다는 이유를 들어 상언과 격쟁을 통제하자고 주장하였다. 그 내용이 신분제의 부정, 집단적 저항 등으로까지 변질될 조짐을 보이자 정조가 한발 물러서기도 하였는데, (가)와 (나)는 그 당시의 조치들이다. (가)는 도성 밖으로 장소를 한정하는 조치이고, (나)는 외람된 것에 대한, 즉 내용이 분수에 안 맞고 지나친 것에 대한 처벌을 강조한 것이다. 당시는 사건사 외에 민은에 대한 것도 주제로 허용되고 있었다. 이 조치는 사건사일 경우 잘 처벌하지 않는 경향이 있는데, 사건사일지라도 지나치면 처벌하라는 것으로 상언과 격쟁에 대한 일정 부분의 제한이라 볼 수 있다.

[정답풀이] (나)는 정조 13년의 조치이며 민은에 관한 주제가 허용된 것은 정조 9년이다. 따

이 콘텐츠에 관한 저작권은 (주)이감에 있습니다.

라서 여기서의 외람은 내용상 지나친 것을 가리키는 것이지, 민은에 관한 주제를 다룬 것을 뜻하지는 않는다. 정조는 (나)의 조치를 내림으로써 신분제의 부정이나 집단적 저항 등을 경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외람이 잘못된 것임을 강조하여 상언과 격쟁이 그러한 방향으로 흐르지 않도록 한 조치라 볼 수 있다.

[오답풀이] ①(가)와 (나)는 상언과 격쟁의 내용이 외람으로 흐르자 일정 부분 제약을 가한 것이다. 즉 상공업 종사자들의 목소리를 적극 수용하려는 시도라 보기는 힘들다. ②위외격쟁을 허용한 것은 정조 1년이다. (가)에서 다시 한번 이를 허용한 것은 아니다. 참고로 (가)는 궐 밖에서 행하는 격쟁일지라도 도성 안에서는 하지 못하도록 장소를 제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③(가)는 장소를 제한하여 격쟁을 일정 부분 통제하려는 조치이므로, 이를 통해 격쟁을 무기로 삼는 폐단을 없애고자 하는 의도가 있을 것이라 해석하는 것은 가능하다. 다만 민은을 호소하는 것을 제한한 것은 아니다. 이는 허용된 장소 외의 곳에서 격쟁을 한 자는 공직에 들이지 말라는 제한 조치이며, 다만 그러한 자일지라도 왕의 특별한 하교가 있으면 공직에 들일 수 있다는 내용이다. ⑤(나)는 사건사일지라도 외람된 것을 처벌하라는 내용이다. 또한 정조는 외람을 처벌하더라도 그 내용들은 가감없이 보고하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민의를 그대로 파악하기 위함이다. 다만 잘못 부과된 세금에 대한 고발은 외람된 내용이 아니다. 이는 잘못 내려진 조치를 시정하기 위한 것으로, 넷째 문단에 따르면 정상적인 고발에 해당한다.

17. [출제의도] 지문의 단어와 문맥상 동음이의 관계에 있는 단어를 찾을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의 '사리(事理)'는 문맥상 '일의 이치.'라는 의미이며, ②의 '사리(私利)'는 '사사로운 이익.'이라는 의미이므로 두 단어는 동음이의 관계에 있다.

[18～20] 현대시

➔ **연계 지문 : 김현승, 「플라타너스」(수능특강 85쪽)**
➔ **작가 연계 : 한용운, 「명상」(수능특강 79쪽)**

18. [출제의도] 두 작품의 표현상 특징과 그 효과를 적절하게 비교하여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가)는 '이르렀습니다', '되었습니다', '모릅니다' 등에서 경어체의 종결 어미를 반복하고 있고, (나)는 청자인 '플라타너스'를 반복적으로 호명하며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두 작품은 이러한 반복을 통해 시적 진술에 리듬감을 부여하고 있다.

[오답풀이] ②(가)의 경우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시상이 전개된다고 볼 수 있지만, 이를 통해 화자의 인식 변화가 드러나는 것은 아니다.

19. [출제의도] 외적 준거를 바탕으로 작품을 적절하게 감상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손을 잡고 같이 살자'라는 말은 화자가 한 말이 아니라 '이 나라 사람들'이 화자에게 건넨 말이다. 화자는 이상적인 세계에 머물러 살자는 제안을 받고도 현실로의 귀환을 선택하는데, <보기>의 내용을 고려할 때 이는, 승려로서 개인적 깨달음을 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중생을 구제하는 데 뜻을 둔 시인의 면모를 보여 준다.

[오답풀이] ⑤'달빛의 물결'을 타고(달빛을 보면서, 정도로 이해하면 되겠다.) 명상을 시작한 화자는, 항해에 비유된 명상을 마치고 현실로 되돌아와서 '달빛의 물결'이 '어린 풀의 장단을 맞추어 우줄거'리는 정경을 본다. 이는 명상을 마친 화자에게 명상의 여운이 남아 있는 상황을 감각적으로 형상화한 것이라 볼 수 있다.

20. [출제의도] 작품의 내용을 적절하게 이해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E]의 '수고론 우리의 길이 다하는 어느 날'이라는 시구에서, 화자가 자신과 '플라타너스'가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화자는 그 '어느 날'에 '너를 맞아 줄 검은 흙(죽음 이후 안식할 곳)이 먼 곳에 따로이 있'는지를 물은 후 '나는 오직 너를 지켜 네 이웃이 되고 싶을 뿐'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는 화자가 사는 동안에 늘, 그리고 죽은 이후에도 영원히 플라타너스와 동반자가 되기를 소망하고 있음을 나타낸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오답풀이] ②[B]에서 화자는 '플라타너스'에게 '너는 사모할 줄을 모'른다고 말한다. '플라타너스'가 나무인 점을 고려하면 이는 당연한 말이다. 하지만 화자는 이후 '(그러나) 너는 네게 있는 것으로 그늘을 늘인다'는 말을 덧붙임으로써, '플라타너스' 나무를 통해 자신이 가진 것을 남에게 베풀 줄 아는 너그러운 존재의 모습을 떠올리게 하고 있다. ④[D]에서 화자는 '플라타너스'의 '뿌리 깊이' '영혼을 불어넣고 가'고 싶지만, '나는 너와 함께 신이 아니'라고 말한다. 이는 플라타너스의 생명의 근원에 자신과 같은 영혼을 심어 주고 싶지만 신이 아닌 한 그럴 수 없다는, 인간으로서의 자기 존재의 한계에 대한 인식을 드러낸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21～26] 고전시가－수필 통합

➔ **연계 지문 : 홍순학, 「연행가」(수능특강 235쪽)**
➔ **작가 연계 : 박지원, 「도강록」(수능특강 206쪽)**
➔ **윤선도, 「어부사시사」**

21. [출제의도] 작품의 성격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다)의 글쓴이는 책문 안 국경 마을에 대한 관찰과, 그와 관련된 자신의 감정과 생각에 대한 성찰을 바탕으로, 청나라의 문물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하는 문제와 이용후생에 대한 깨달음을 제시하고 있다.

22. [출제의도] 작품의 표현상 특징과 그 효과를 적절하게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가)의 <동 8>은 중장('머흔 구름 한치 마라 세상을 가리운다')과 종장('파랑성을 염치 마라 진훤을 막는도다')에서 유사한 구조를 가진 시구를 반복함으로써, 어지러운 세속을 멀리하고 자연에 은거하고자 하는 화자의 태도를 강조하고 있다. (나)는 '태상대신 정공수는 맑고 수려한 골격이요 ～ 공부 벼슬 왕현이는 단정하온 태도로다'에서 유사한 구조를 가진 시구를 반복함으로써 명나라 '명문거족'의 '후예'인 상대방들이 뛰어난 인물들이라고 생각하는 화자의 태도를 강조하고 있다.

[오답풀이] ③(나)의 주된 표현 대상은 명나라 '명문거족'의 '후예'인 청나라 관리들이다. 이들과 어울린 자신의 경험을 서술한 (나)에서는 반어적 어조나 부정적 인식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

23. [출제의도] 외적 준거를 바탕으로 작품을 적절하게 이해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동 8>의 중장에서는 '세상을 가리'어 주니 '머흔 구름 한치(=몹시 억울하거나 원통하여 원망스럽게 생각하지) 마라'고 하는데, 이는 '머흔 구름'이 (자연의 풍광을 보기 어렵게 만든다 하더라도) 부정적인 세상이 보이지 않도록 가려주는 역할을 하니 나쁘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다. 이는 종장과 마찬가지로 세속으로부터 거리를 두고자 하는 작가의 마음을 내비치는 것이지, 혼란한 정치 현실이 작가의 마음을 어지럽히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다.

[오답풀이] ①<추 7>의 중장은 '밝은 달'의 '청광(=선명한 빛.)'을 임금에게 주고 싶지만, '봉황루 묘연하'여 줄 수가 없다는 뜻을 담고 있다. 여기서 '청광'은 임금에게 전하고 싶은 작가의 충심, 혹은 임금의 정치에 도움이 될 만한 작가의 능력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으며, '누굴 줄꼬'라는 탄식에서 안타까움을 엿볼 수 있다. ②<추 7> 종장의 시상은 중장과 마찬가지로, 초장의 '밝은 달'에서부터 이어져 나온 것이다. 중장의 '청광'이 '밝은 달'의 빛에서 환기된 것처럼, 종장의 '옥토의 찧는 약' 역시 달에서 떠올린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를 '호걸(=지혜와 용기가 뛰어나고 기개와 풍모가 있는 사람.)'에게 '먹이고' 싶다는 말에는, 나라를 위해 임금을 도와 일할 인재들을 양성하는 데 자신이 힘을 보태고 싶다는 마음이 담겨 있다고 할 수 있다. ③'외로운'과 '씩씩한고'라는 시어에서 '솔'이 의인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작가가 정계로부터 배척당해 향촌에 은거하고 있었다는 <보기>의 설명을 참고하면, '물가의 외로운 솔'이 그러한 작가의 처지를 빗댄 것이라 이해할 수 있다. ⑤<동 8>의 종장에서 '진훤을 막'아 주니 '파랑성을 염치 마라'고 한 것은, '파랑성'이 시끄럽다 해도 그것 때문에 속세의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지 않으니 오히려 좋다는 의미이다. 이는 세속으로부터 거리를 두고 싶어 하는 마음을 나타낸 것이며, <보기>를 참고하면 자신을 배척한 정계로부터 거리를 두고 싶다는 작가의 마음을 담은 것이라 이해할 수 있다.

24. [출제의도] 외적 준거를 참고하여 작품을 적절하게 감상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다)의 작가는 청나라 변방의 시골에서 본 선진적인 문물에 놀라다가, 자신이 지금 막 청나라 국경 안으로 들어왔으니 이제껏 본 것은 앞으로 볼 것의 만분의 일밖에 안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한다. 따라서 '본 것이라고는 만분의 일에 지나지 않을 터'라는 구절은, 청나라에서 얻은 견문을 대수롭지 않은 것으로 여기고 싶어 하는 마음을 담은 것이 아니라, 이미 본 것도 대단하지만 앞으로 훨씬 더 많은 견문을 얻게 될 것이라는 생각을 담고 있다.

[오답풀이] ①(나)의 작가는 '강개한 선비와 인걸이나 찾으리라'고 하고는 '대명 때의 명문거족 후예'인 관리들을 만나 어울리고 있다. 굳이 명나라의 후예인 관리들을 만난 것이나, 그들을 '강개한 선비와 인걸'이라 높이 평가하는 것에서, 이미 멸망한 명나라를 존중하는 마음을 짐작할 수 있다. ②(나)의 작가는, 명나라의 후예인 청나라 관리들이 청나라의 의관문물에 따라 변발

이 콘텐츠에 관한 저작권은 (주)이감에 있습니다.

을 하고 있는 자신들 '의관의 수치스러움에 분한 마음 품'고서 '옛 의관'을 그대로 지키고 있는 '조선 사람'인 자신들을 반긴다고 했다. 청나라의 의관문물을 따르기보다 '옛 의관'을 지키는 것을 좋게 여긴다는 점에서, 조선 사신인 자신들과 명나라 후예인 관리들이 청나라에 대한 거부감을 공유하고 있다고 여기는 심리를 짐작할 수 있다. ③ (다)의 작가는 청나라의 변방 시골인 '책문 안'의 광경을 보고 청나라의 문물이 조선보다 훨씬 앞서 있음을 깨닫는다. 그는 '홀연히 기가 꺾여, 문득 여기서 바로 되돌아갈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하는데, 여기서 작가가 청나라의 앞선 문물을 처음으로 대하고 느낀 당혹감을 짐작할 수 있다. ⑤ 청나라의 변방 시골 마을만 해도 조선보다 문물이 앞서 있고 잘사는 것을 보고도, 하인 장복은 중국이 오랑캐의 나라이기 때문에 중국에 태어나는 것은 싫다고 대답한다. (장복이가 말한 '되놈'이란, 예전에, 만주 지방에 살던 여진족을 낮잡는 뜻으로 이르던 말이다.) 작가는 청나라의 문물을 '석가여래의 밝은 눈', 즉 아무런 편견 없는 공평한 눈으로 대해야 한다는 생각을 드러내고 나서, 하인인 장복과의 대화를 통해 당대 조선에 널리 퍼져 있던 청나라에 대한 뿌리 깊은 편견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25. [출제의도] 구절의 문맥적 의미를 적절하게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다)의 '중략' 이후 부분에서는, '중략' 앞부분에서 '강개한 선비와 인걸'이라 평가했던 '대명 때의 명문거족 후예'인 청나라 관리들과 조선 사신들 간의 어울림을 진술하고 있다. ㉡은 화자를 포함한 조선 사신단이 매일같이 그들과 함께 만나 친밀하게 어울리고 있음을 나타내는 시구이다.

[오답풀이] ① ㉠은 상대방으로부터 융숭한 대접을 받았음을 나타내는 시구로 이해할 수 있다. 문맥의 흐름으로 볼 때, 사치를 지적하며 그들이 물질적 가치에 경도되어 있다고 비판하려는 의도와는 거리가 멀다. ③ ㉢은 상대방인 청나라 관리들을 칭찬하는 구절이다. ④ ㉣과 그 바로 앞의 행은, 선비들끼리 시를 짓고 글씨를 써서 서로 내보이며 즐기는 모습을 나타낸 부분이다. 이 부분을 태도에 겸손함이 결여되어 있다는 지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앞서 '모두 다 문장 재사'로서 '문필을 좋아'한다는 호의적 평가와 어울리지 않는다. ⑤ 작가의 시와 글씨를 칭찬하는 말과 그에 대해 겸손의 뜻을 나타내는 말이 거듭되는 모습을 나타낸 부분이다. 의견 차이로 반목하는 상황과는 무관하다.

26. [출제의도] 작품에 나타난 글쓴이의 태도를 적절하게 이해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다)의 글쓴이는 '책문 안'의 문물을 살피다가 '제도가 이렇게 된 뒤라야 비로소 이용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제도를 이렇게 잘 정돈한 뒤라야 비로소 쓰임에 편리하게 만들었다고 말할 수 있겠다)고 한 후에, 이용(利用, '쓰임을 능히 이롭게 하'는 것)을 한 뒤에야 후생(厚生, '삶을 두텁게 하'는 것)을 할 수 있고, 후생을 한 뒤에야 정덕(正德, '자신의 덕을 바로잡'는 것)을 할 수 있다고 했다. 덕을 먼저 바로잡아야 제도를 올바르게 정립할 수 있다는 진술은 글쓴이의 생각과는 순서가 어긋난다.

[오답풀이] ① 글쓴이는 '책문 안'의 문물을 살피다가 '친구인 덕보 홍대용이 언젠가, "그 규모는 크고 기술은 세밀하다."라고 말한' 것을 떠올리고 있다. 참고로 '그 규모는 크고 기술은 세밀하다'라는 말은, 글쓴이보다 15년 앞서 청나라에 사신단으로 다녀온 홍대용이 「을병연행록」 등에서 청나라 문물에 대해 내린 평가이다. ② '책문 안'의 문물에 대해 '그 제도가 결코 촌티가 나지 않음을 볼 수 있었다.'라며 '책문은 중국 동쪽의 가장 끝인데도 오히려 이와 같다.'라고 한 데서 확인할 수 있다. ③ 청나라 문물을 보고 '온몸이 나도 모르게 '부글부글 끓어오'르자 '깊이 반성하'면서 '이는 질투하는 마음이로다. 내 평소 심성이 담박하여 무엇을 부러워하거나 시샘하고 질투하는 것을 마음에서 끊어 버렸거늘, ~ 지금 망령된 생각이 이렇게 솟는 것은 무슨 까닭인가? 이는 다만 나의 견문이 좁은 탓이리라.'라고 한 것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④ 청나라 문물을 보고 '한 가지 일도 구차하거나 미봉으로 한 법이 없고' '법도가 있지 않은 것이 없'다고 하며, '제도가 이렇게 된 뒤라야 비로소 이용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라고 한 뒤 '이용을 한 연후라야 후생(=사람들의 생활을 넉넉하고 윤택하게 하는 일.)을 할 수 있'다고 한 데서 확인할 수 있다.

[27 ~ 30] 고전소설

➔ **연계 지문 : 장자백 창본 「춘향가」 (수능특강 34쪽)**

27. [출제의도] 작품의 세부 내용을 적절하게 이해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지문의 맨 앞부분에, '(도련님이) 어찌 고함을 질렀던지 사또께서 깜짝 놀래어'라고 서술되어 있고, 그 뒤 '이리 오너라. 책실에서 누가 생침을 맞느냐, 넓적다리뼈를 주물리느냐? 웬 소리냐? 급히 알아 올려라.'라는 사또의 말이 제시되어 있다. 이후 '통인(조선 시대에, 관아에서 수령의 잔심부름을 하던 사람)'이 도련님을 찾아가 질문을 하는 상황이 나오므로, 사또가 책실에서 들리는 난데없는 고함 소리를 이상하게 여기고 상황을 알아보기 위해 사람을 보냈음을 알 수 있다.

[오답풀이] ② 사또는 아들이 '아홉 살 먹었을' 때의 일화를 들어, 아들이 어릴 적부터 글재주가 탁월하였음을 목 낭청에게 자랑하고 있다. ③ 통인은 도련님에게 '무슨 말로 여쭈오리까?'라고 묻고는 도련님이 전하라고 일러 주는 말을 사또에게 '그대로 여쭈'었다. 도련님의 모습을 보고 본 대로 보고했다는 내용은 지문에 나타나 있지 않다. ④ 방자는 도련님의 명을 받아 상방(=예전에, 관아의 우두머리가 거처하던 방.)에 불이 꺼졌는지 보고 '불 아니 껐나이다.'라고 대답하고 있을 뿐, 직접 방 안을 들여다보고 있지는 않다. ⑤ 상방에 불이 꺼지자 도련님은 방자와 통인을 데리고 길을 나섰다.

28. [출제의도] 구절의 의미를 적절하게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은 자신들의 어릴 적 일을 들어 보통의 아이들은 글 읽기를 싫어한다고 말함으로써, 이와는 다른 자기 아들의 비범함을 자랑하려는 의도에서 한 말이다. 글공부를 싫어했던 아들에 대한 이해심과는 무관하다.

[오답풀이] ① 사또가 갑자기 고함 소리가 들린 까닭을 알아보기 위해 '통인'을 보내자, 도련님은 글공부에 열중하다가 흥취가 일어 절로 소리를 질렀다고 '통인'에게 말한다. 이는 춘향에 대한 생각에 빠져 있었다는 사실을 숨기고 시치미를 떼며 둘러댐으로써 난처한 상황을 모면하려는 말이라 할 수 있다. ② 사또는 자신이 아들에게 속은 줄도 모르고 '웃음'을 '탕건 벗어지는 줄도 모르고 스물네 꼭지를 넘기'도록 웃고 있다. 이는 흡족함을 참지 못하는 모습을 과장되게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④ 도련님은 상방에 불이 꺼져야, 즉 사또가 잠들어야 춘향을 만나러 몰래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에는 춘향을 빨리 보고 싶은 마음에 초조해하는 심리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다. ⑤ 도련님은 아버지인 사또의 눈을 피해 몰래 춘향을 만나러 가는 상황이다. ㉤에는 이러한 상황에서, 혹시라도 들킬까 우려하여 등롱불을 감추는 모습이 나타나 있다.

29. [출제의도] 인물의 성격과 서사적 기능을 적절하게 이해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목 낭청은 사또의 말에 '아는 것이든 모르는 것이든 그때그때 형편대로 대답은 바람에 쓸리는 대로' 하는 인물로서, 사또의 자식 자랑에 무턱대고 맞장구를 치고 있다. 아들을 기특해하는 사또의 심리에 자기 주관도 없이 앞뒤 논리도 없이 호응하고 있는 것이다.

[오답풀이] ②, ③ 목 낭청은 자기 주관이 없이 사또의 말에 호응하는 인물이다. 사또에게 조언을 건넨다거나, 사또와 논쟁을 벌이는 모습은 나타나 있지 않다. ⑤ 목 낭청은 사또의 말에 부정적 반응을 표하고 있지 않다. '아니오. 그 애가 정승을 못 하면 장승을 하여도, 하기는 꼭 하오리다.'는 부정적 반응이라기보다 재담에 불과하며, '이런다 하였으나, 무슨 그럴 리가 있으리오.'라는 서술자의 말에서 보듯 실제 있었던 일이 아니다. 또한 목 낭청의 말이 사또의 반성을 이끌어 내는 것도 아니다.

30. [출제의도] 외적 준거를 참고하여 작품을 적절하게 감상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C]는 우스꽝스러운 상황이 벌어지는 장면을 제시함으로써 관객의 흥미를 돋우고 있지만, 이것이 중심 서사(몽룡과 춘향의 사랑)에 대한 몰입을 강화하는 것은 아니다. <보기>에는 이러한 장면이 오히려 중심 서사에 대한 관객의 몰입을 해칠 수 있다고 설명되어 있다.

[오답풀이] ② [B]는 목 낭청이 '그 애가 정승을 못 하면 장승(=돌이나 나무에 사람의 얼굴을 새겨서 마을 또는 절 어귀나 길가에 세운 푯말.)을 하여도, 하기는 꼭 하오리다.'라거나 '내 여태 대답은 하였으나, 뉘 말인 줄은 몰랐소.'와 같이 터무니없는 대답을 하는 상황을 제시하고 있는데, <보기>를 참고하면 이러한 상황은 관객의 웃음을 유발하는 효과를 지닐 것이라 볼 수 있다. ③, ⑤ [B]의 '무슨 그럴 리가 있으리오'나 [C]의 '광대의 망설이었다'는 서술자의 말(<보기>를 참고하면, 판소리 창자의 말)이다. <보기>에 따르면, 이 말은 [B]와 [C]에 제시된 장면이 실제 일어난 사건이 아님을 밝힘으로써 장면을 일단락하고 이야기를 중심 서사로 되돌리는 기능을 한다.

[31 ~ 34] 현대소설

➔ **연계 지문 : 손창섭, 「잉여 인간」 (수능특강 326쪽)**

31. [출제의도] 지문의 서술상 특징을 적절하게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지문에서는 만기가 익준의 아들과 함께 익준의 집으로 향하는 과정, 익준의 집에 도착하여 상

이 콘텐츠에 관한 저작권은 (주)이감에 있습니다.

황을 파악하고는 돈을 마련하러 봉우와 함께 봉우 처를 만나러 가게 되는 과정, 봉우 처를 만나 돈을 변통해 와서 익준 처의 장례를 치르는 과정, 장례를 치르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익준과 만나는 과정 등 사건이 진행된 과정이 시간 순서로 전개되고 있다.

[오답풀이] ① 지문에서 등장인물들이 3인칭으로 불리고 있고 인물들의 속마음도 해설되고 있으므로 서술자는 전지적 작가에 해당하며, 지문 내내 이 전지적 작가 시점이 유지되고 있으므로 서술자가 교체되는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③ 하나의 사건이 시간 순서에 따라 전개되어 가므로 여러 사건을 병치(= 두 가지 이상의 것을 한곳에 나란히 두거나 설치함.)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⑤ 지문에는 '저녁때가 되어서야'나 '이튿날 아침', '거의 황혼이 되어서야'와 같은 시간 표지가 나타나 있을 뿐, 시간적 배경이 묘사된 부분은 찾을 수 없다. 또 인물의 성격 변화를 암시하는 부분도 확인할 수 없다.

32. [출제의도] 특정 소재와 관련한 세부 내용을 적절하게 이해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만기는 소년에게 고무신을 사 주고 싶은 마음이 들지만, 그것을 소년에게 말로 표현하지는 않는다. 소년이 부끄러워하는 모습은, 만기가 고무신이 망가진 것을 알아채기 전에 한쪽 고무신을 마저 신으라고 말하자 '점직한(부끄럽고 미안한) 듯이' '발에 땀이 나서 그래요.'라고 말하며 그 망가진 고무신을 감추는 것에서 드러난다.

33. [출제의도] 특정 구절이 갖는 문맥적 의미를 적절하게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환자에게 주사 몇 대라도 놓아 주면 한이나 풀릴 것 같아서'라는 말은 더 이상 환자가 살아날 가망이 보이지 않으므로 한이라도 풀기 위해 주사를 맞을 수 있게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은, 익준이 아내의 병을 반드시 고칠 수 있으리라 믿은 것이 아니라 아내의 병을 고칠 가망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을 시사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오답풀이] ① ㉠에서 노파가 딸이 죽은 것을 알고도 그리 슬퍼하지 않은 것은, 바로 다음 문장에 나오듯 '보기에 딱하리만큼 심한 피로가 배어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만큼 삶이 고달프다 보니 슬퍼할 기력도 없었던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④ 익준은 지금 집에 와서 아내의 죽음을 처음 알았을 것이다. 아내에게 주사 몇 대라도 놓아 주기 위해 돈을 벌러 가서는 부상을 입고 귀가했는데 상복을 입은 자기 자식들 등을 보고는 '석상처럼' 되어 버렸다는 것은 곧 아내의 죽음을 알아차리고 충격을 받아 굳어 버린 것을 의미할 것이다.

34. [출제의도] 외적 준거를 참고하여 작품을 적절하게 감상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봉우 처가 당장 필요한 장례 비용을 융통해 주고 있기는 하지만, 만기에게 '고지식한 양반'이라 칭하는 것은 그 태도가 '거의 아양에 가까운 교태'라고 묘사되는 데서도 알 수 있듯, 만기에게서 돈 거래 말고 다른 무엇인가 원하는 바가 있기 때문일 것이다. ('앞부분의 줄거리'에도 만기가 봉우 처의 호감 표현에 난처해한다는 서술이 제시되어 있다.) 그러므로 봉우 처는 자신의 욕망에 충실한 인간이지, 도덕적 균형감을 갖추고 혼란한 현실에 대응해 나가는 인물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오답풀이] ① 병든 아내를 두고 며칠 전에 공사판을 찾아갔다는 것은 일정한 직업이 없어서 당장 필요한 돈을 구하기 위해 하루하루 품을 팔아서 살아가는 모습에 해당한다. 게다가 머리에 흰 붕대를 감았다는 것은 노동을 하다 부상을 당했음을 뜻한다. 이는 곧 어려운 환경 속에서 불안정한 삶을 영위하는 인물의 모습이라 할 수 있다. ③ 친구가 부재한 가운데 친구 아내가 죽었는데도 그저 시무룩하게 앉아서 만기를 따라다니기만 하는 봉우는 삶에 대해 수동적이고 무기력감에 빠진 인물이라 할 수 있겠다.

• 선택과목 - 화법과 작문 •

[35 ~ 37] 화법

35. [출제의도] 라디오 진행자의 말하기 방식에 대해 적절하게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 연계 문항 : 수능특강 35쪽

진행자는 '사연을 읽으니 ~ 우릴 수 있게 되었어요.'라고 자신의 경험을 언급하고, '○○ 님도 ~ 있으실 거예요.'라고 사연 신청자를 격려하고 있다.

36. [출제의도] 라디오 방송에 반영된 방송 진행 계획에 대해 적절하게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 연계 문항 : 수능특강 19쪽

진행자는 찻물의 온도라는 문제의 원인을 추정하고는 있지만, 차를 우리는 방법에 대해 순서대로 설명하고 있지는 않다.

[오답풀이] ① 진행자는 '<맛있는 라디오>'라고 방송 프로그램 제목을 언급하고, '오늘은 ~ 해결해 드리려 하는데요'라고 그날의 방송 내용에 대해 안내하고 있다. ② 진행자는 사연을 읽고, '찻잎의 양, 차를 우리는 시간, 그리고 찻물의 온도에 신경 써야' 한다며 차를 우릴 때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요소들에 대해 안내하고 있다. ③ 진행자는 '차에는 ~ 성분이 있는데요'라고 맛과 관련된 차의 성분들을 소개하고, 이어 차의 성분들과 찻물의 온도와의 관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37. [출제의도] 라디오 청취자의 듣기 반응을 적절하게 이해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 연계 문항 : 수능특강 62쪽

청취자는 홍차를 우린 방법에 대해 '선물받은 홍차를 펄펄 끓는 물에 우려 마셨더니 정말 맛있었'다고 하였다. 방송에서 '홍차의 경우에는 100℃의 물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언급한 바 있으므로, 방송에서 언급되지 않은 상황에 대해 방송 내용을 응용하며 들었다는 이해는 적절하지 않다.

[38 ~ 42] 화법 - 작문 통합

➔ 연계 지문 : 수능특강 10쪽

38. [출제의도] 토론에서 공통으로 인정하고 있는 전제에 대해 적절하게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찬성 1'은 '저작자에게 적절한 경제적 보상이 주어져야 ~ 문화가 발전할 수 있'다고 하였으며, '반대 1'은 '문화 발전을 위해 저작자에게 적절한 경제적 보상이 필요하다는 점은 인정'하였다. 따라서 찬성 측과 반대 측은 공통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은 ③이다.

39. [출제의도] 토론의 입론에 대해 적절하게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찬성 1'은 '2000년 이후 도서관의 수가 많이 늘면서 ~ 저작자에게 주어지는 보상도 크게 줄었'다는 문제 상황을 제시(㉠)한 후 '저작자의 경제적 손실을 보상하는 공공 대출 보상 제도'라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해당 제도를 도입하면 '창작 활동이 보다 활성화될 것'이라는 기대 효과를 제시(㉢)하고 있다.

40. [출제의도] 토론에서의 말하기 방식에 대해 적절하게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찬성 1'은 반론에서 상대방이 지적한 도서관의 자료 구입 예산이 줄어든다는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한 영국의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오답풀이] ① '반대 2'는 반대 신문에서 '다른 나라들에 발맞춰 ~ 도입해야 한다고 하셨'다고 상대방이 한 말을 언급하며 질문했지만, '찬성 1'로부터 공공 대출 보상 제도를 도입하지 않기로 결정한 나라가 있다는 자신이 원하는 대답을 이끌어 내지는 못했다. ③ '찬성 1'은 반대 신문에서 '도서관 이용자가 ~ 늘렸다고 하셨'다고 상대방이 말한 내용을 지적했지만 '반대 1'이 자신의 생각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하고 있지는 않다.

41. [출제의도] 글에 반영된 글쓰기 계획에 대해 적절하게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학생'은 (나)에서 토론회에 대해 '의견을 밝히고자 글을 쓰게 되었다'라고 글을 쓰게 된 목적은 밝혔지만 토론회에 방청객으로 참석한 이유를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오답풀이] ① '우리 지역 도서관'이라는 토론회가 열린 장소와 '공공 대출 보상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라는 토론회의 논제를 밝히며 글을 시작하고 있다. ③ '토론회 이후 내가 확인한 보고서에 따르면 ~ 타당하지 않은 주장이라고 생각한다'라고 토론회 이후 찾아본 보고서를 바탕으로 판단한 생각을 쓰고 있다. ④ 넷째 문단에서 '나는 공공 대출 보상 제도의 도입에 반대'한다고 반대 입장을 선택한 후 찬성 측 주장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 ⑤ 다섯째 문단에서 토론회를 방청한 후 든 생각을 제시하고 다른 이용자들에게 토론회 참관을 권유하고 있다.

42. [출제의도] 글에 나타난 토론 평가 내용에 대해 적절하게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필자가 찬성 측이 입론에서 제시한 방안이 공익에 기여하는 도서관의 역할을 간과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는 부분은 글에 나타나지 않는다.

[43 ~ 45] 작문

➔ 연계 지문 : 수능특강 188쪽

43. [출제의도] 작문 맥락을 고려하여 글에 활용된 글쓰기 전략을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가)에 제시된 학생의 메모에 따르면 (나)의 제재는 '공유 냉장고'이다. (나)에서는 공유 냉장고에 대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공유 냉장고의 탄생 배경을 제시하고 있을 뿐, 공유 냉장고가 우리 시에 설치되기까지의 과정을 시간 순서에 따라 설명하고 있지 않다.

[오답풀이] ③ (나)의 셋째 문단에 공유 냉장고가 가지는 여러 효용적 측면을 부각하여 제재인 공유 냉장고의 긍정적인 영향을 드러내고 있다.

이 콘텐츠에 관한 저작권은 (주)이감에 있습니다.

44. [출제의도] 초고를 보완하기 위해 추가로 수집한 자료의 적절한 활용 방안을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ㄱ은 ○○ 시장의 공유 냉장고를 이용하는 시민에 관한 기사이고 ㄴ은 음식물 기부가 들어오지 않아 별도의 '공급자'가 필요해지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들의 관심이 필요하다는 인터뷰이다. (나)에서 ○○ 시장의 공유 냉장고를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다고 언급했지만 그 이유가 별도의 공급자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을 이 두 자료를 통해 알 수는 없다. 게다가 ㄴ에 따르면 공유 냉장고가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공급자가 필요하지 않은 것이지, 별도의 공급자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공유 냉장고가 활발하게 운영되는 것이 아니다.

[오답풀이] ① ㄱ은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 독거노인이 공유 냉장고의 반찬들로 매끼니를 제대로 갖춰 먹을 수 있게끔 도움을 받고 있다는 사례로 활용할 수 있다. ⑤ ㄴ의 인터뷰에 따르면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음식물을 기부해야 공유 냉장고가 지속된다. 또한 ㄷ에 따르면 시민들이 공유 사업에 참여하면 공동체 의식이 강화되고 이는 시민들로 하여금 다시 공유 사업에 참여하게 하는 선순환을 일으켜 (공유 냉장고와 같은) 공유 사업을 지속시키는 원동력이 된다. 그러므로 이 두 자료를 활용하여 공유 냉장고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해서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다.

45. [출제의도] 조언에 따라 글의 마지막 문장을 작성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예상 독자인 우리 학교 학생들이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으로 '여분의 과자나 음료와 같은 음식물을 공유 냉장고에 채워 넣'기를 제시하며 공유 냉장고의 이용을 권유하고 있는 ③이 적절하다.

• 선택과목 - 언어와 매체 •

[35 ~ 39] 언어

35. [출제의도] 동사와 형용사의 특징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 연계 지문 : 수능특강 17쪽

동사와 형용사는 모두 주어에 대해 서술의 기능을 한다. '산에 오르다'의 '오르다'는 동사이지만, 부사어 '산에'에 대해 서술의 기능을 하지는 않는다. 생략된 주어에 대해 서술의 기능을 한다.

[오답풀이] ① 동사의 현재 시제는 어간에 선어말 어미 '-는/ㄴ-'이나 관형사형 어미 '-는'이 결합하여 실현된다. '가는'과 '간다'를 통해 '가다'가 동사임을 알 수 있다. ② '비가 내리다'의 '내리다'는 주어가 능동적으로 그 움직임을 수행하지 못하는 작용 동사에 해당한다. ④ 형용사의 현재 시제는 관형사형 어미 '-은/ㄴ'이 결합하여 실현된다. '굉장한'과 '푸른'에서는 모두 관형사형 어미 '-ㄴ'이 현재 시제를 실현하고 있다.

36. [출제의도] 형태가 동일한 동사와 형용사를 구분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 연계 문항 : 수능특강 66쪽

위 문장의 '붉다'와 아래 문장의 '붉다' 모두 형용사이다. 선어말 어미가 결합되지 않은 채로 현재형으로 실현되는 것과, 현재 시제를 나타내기 위해 관형사형 어미 '-은'이 사용된 것으로 보아 이를 알 수 있다.

[오답풀이] ② 위 문장의 '밝다'는 형용사에, 아래 문장의 '밝다'는 동사에 해당한다. ③ 위 문장의 '크다'는 동사에, 아래 문장의 '크다'는 형용사에 해당한다. ④ 위 문장의 '있다'는 동사에, 아래 문장의 '있다'는 형용사에 해당한다. ⑤ 위 문장의 '굳다'는 형용사에, 아래 문장의 '굳다'는 동사에 해당한다.

37. [출제의도] 단어를 로마자 표기법에 따라 표기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 연계 문항 : 수능특강 23쪽

'국악기[구각끼]'를 로마자로 표기할 경우, 첫음절의 'ㄱ'은 'g'로 적고, 두 번째 음절의 초성의 'ㄱ'은 'g'로, 종성의 'ㄱ'은 'k'로 적는다.

[오답풀이] ① '갈림길[갈림낄]'의 첫음절과 두 번째 음절의 'ㄹㄹ'은 'll'로 적고, 세 번째 음절의 'ㄹ'은 어말이므로 'l'로 적는다. ⑤ 된소리되기는 표기에 반영하지 않으므로, 두 번째 음절의 [ㅃ]은 'b'로 적는다.

38. [출제의도] 반의어에 대해 이해하고 반의어를 기준에 따라 분류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 연계 문항 : 수능특강 94쪽

정도 반의어는 단어 쌍 사이의 중간 단계가 허용되며, 정도 부사의 수식을 받을 수 있다. '덥다-춥다'는 더운 것과 추운 것 사이의 중간 단계가 허용되며, '매우 덥다'처럼 정도 부사의 수식을 받을 수 있다. '빠르다-느리다'도 중간 단계가 허용되며, '조금 느리다'처럼 정도 부사의 수식을 받을 수 있다.

[오답풀이] ① '가다-오다'와 '입다-벗다'는 모두 방향 반의어에 해당한다. ③ '살다-죽다'는 상보 반의어에 해당한다.

39. [출제의도] 자료를 바탕으로 중세 국어의 문법적 특징을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 연계 문항 : 수능특강 87쪽

'ᄒᆞᆫ 거름 나소 거룸만 몯ᄒᆞ니라(한 걸음 나아가 걸음만 못하니라)'의 '거룸'은 명사형 어미 '-움'과 결합한 동사이다. 앞에 쓰인 '거름'이 명사 파생 접미사와 결합한 명사이다. 현대 국어와 달리, 중세 국어에서는 명사 파생 접미사와 명사형 어미의 형태가 구분되었다.

[오답풀이] ② 현대어 풀이 '바가'를 통해 '배'는 모음으로 끝난 체언 '바' 뒤에 주격 조사 'ㅣ'가 결합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⑤ 중세 국어에서는 현대 국어와 달리 객체를 높이는 선어말 어미가 쓰였다. ㉤에서는 객체인 '부텨(부처)'를 높이기 위해 선어말 어미 '-ᅀᆞᆸ-'이 쓰였다.

[40 ~ 42] 매체

40. [출제의도] 종이 신문과 인터넷 신문의 특성을 비교하여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 연계 문항 : 수능특강 138쪽

인터넷 신문인 (나)의 아래쪽에는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링크)'가 하이퍼링크로 제시되어 있어, 이를 통해 (나)를 작성한 생산자의 다른 기사를 읽을 수 있다.

[오답풀이] ① 댓글을 통해 기사의 수용자가 생산자와 실시간으로 소통할 수 있는 매체는 (나)뿐이다. ② (가)와 (나)에 모두 이메일 주소가 제시되어 있어 이를 통해 기사의 수용자는 생산자에게 의견을 전달할 수 있다. ③ (가)는 지면에 게재된 이후에는 내용을 수정하는 것이 자유롭지 못하다. 이와 달리 (나)에는 기사의 '입력' 시각과 '수정' 시각이 제시되어 있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기사를 수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⑤ 사진을 통해 기사의 수용자가 기사 내용 이해에 도움을 얻고 있는 것은 (가)이다. 현재 (나)에는 어떤 시청각 자료도 사용되고 있지 않지만, 인터넷 신문인 (나)는 사진은 물론 동영상 등을 활용하여 수용자의 이해를 돕는 것이 가능한 매체이다.

41. [출제의도] <보기>를 활용하여 매체 자료에 대해 적절하게 판단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 연계 문항 : 수능특강 139쪽

(가)는 향후 전망으로 본문을 마무리하고 있는데, 이는 본문의 내용에서 파악할 수 있듯이 키오스의 도입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점을 부각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향후 전망으로 본문을 마무리한 것이 키오스크의 도입으로 인한 문제가 해소될 것이라는 점을 부각하기 위한 것이라고 파악한 ②의 서술을 적절하지 않다.

42. [출제의도] 매체 자료에 반영된 생산 계획을 적절하게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 연계 문항 : 수능특강 182쪽

학생의 메모를 보면 첫 번째 슬라이드에는 국내 키오스크의 도입 대수와 증가율을 각각의 그래프로 제시하기로 계획되어 있다. 그런데 제작한 슬라이드에는 공공 분야와 민간 분야 각각의 키오스크 도입 대수에 관한 그래프가 제시되어 있어 슬라이드 제작 계획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

[43 ~ 45] 매체 - 언어 통합

➔ 연계 지문 : 수능특강 209쪽

43. [출제의도] 매체 자료의 정보 구성 방식을 적절하게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가)의 [장면 2]에서는 '지하철 □□역 앞 자전거 보관대'에 먼지가 쌓인 채 방치되어 있는 폐자전거를 화면을 통해 보여 주는 것을 통해 실재감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오답풀이] ② (나)에서는 '재생 자전거 사업'에 관한 시민들의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서 글을 작성한다고 밝히고 있을 뿐, 시민들의 요청에 따라 글을 작성하게 되었다고 언급한 부분은 확인할 수 없다. ③ (가)에서 자치구별 공공 재활용 센터로 보내지는 폐자전거의 수량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시에 무단으로 방치되는 폐자전거가 연간 약 15,000대에 이른다고 언급하고 있을 뿐이다.

44. [출제의도] 텔레비전 방송 뉴스에 나타난 언어적 표현에 대해 적절하게 이해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에서는 연결 어미 '-고'를 사용하여 폐자전거가 초래하는 두 가지 문제점, 즉 도시 미관을 해치는 것과 시민들의 보행에 불편함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을 대등하게 나열하고 있다.

45. [출제의도] 정보 전달 및 표현 방식을 중심으로 두 개의 매체 자료를 비교하여 이해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새 자전거와의 비교를 통해 재생 자전거를 구매했을 때의 긍정적인 측면을 드러내고 있는 것은 (나)가 아닌 '자료'이다. '자료'의 '새 자전거 대신 이 재생 자전거를 구매하시면 ~ 줄일 수 있습니다.'와 같은 문구를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이 콘텐츠에 관한 저작권은 (주)이감에 있습니다.